

2024 STUDIO PARKJIHO  
PORTFOLIO

2024  
STUDIO PARKJIHO

박지호는 스튜디오 박지호의 대표이자,  
창작집단 fio의 아트디렉터입니다.  
미학과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 명민한 체계, 유쾌한 상호작용은

박지호의 디자인 지향점입니다.  
똑똑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설계하되  
그 목표가 통제나 효율화가 아니라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인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instagram](#)

@parkjihoisme

[webpage](#)

<https://parkjihois.me> | <https://fiopress.org>

## 혀창살

잔혹극 《혀창살》의 대본집이다. 잔혹동화스러운 무대 연출을 책으로 옮기고자 창살-프레임 장식을 개발했다.



신하3 아아, 요한복음….

아들 싫다. 내가 다 알아서

왕이 등장하고 신하들은 모-

왕 (동화책을 펼치며) 유품  
사내가 둘 있었습니다. 한  
끄는 그냥 그저 그런 놈이  
을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까?  
공주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  
는 얘기에 시험을 보려 가  
국 도착이 얼마 남지 않은  
란 용을 만나게 돼요. 용은

벽돌공2 비싸 보이는.

왕 … 왕관을 머리에 쓰고  
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데, 그건 공주가 도망을 기  
잘라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벽돌공3 으악!

왕 공주의 얼굴에 매료되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공주  
에게 대가를 요구했답니다

벽돌공2 너의 오른손을 내

자유인과 벽돌공1이 검은 코트를 입고 검은 양산을 쓴 채로 등장한다. 벽돌공1은 자유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짐승인 척 연기를 한다.

벽돌공1 우리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자유인 (목을 가다듬으며) 엄마한테요. (속삭이듯이) 사실 철수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마음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벽돌공1 엄마! 너무 좋다.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등 뒤에 숨겨놨던 꽃다발을 꺼내며) 이건 어때요!

자유인 (꽃다발을 받아들며) 좋아하겠다.

벽돌공1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 정말 반갑겠어요.

자유인 (놀라며) 엄마를 오랜만에 보는 건 어떻게 알아요?

벽돌공1 음…, 엄마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길에도 오래 있었고.

자유인 엄마가 저를 보면 좋아할 거예요. 틀림없이.

벽돌공1 (예쁜 척을 하며) 여기 공주도 데려가니까요?

자유인 (웃으며) 사과하려 가니까요. 물론 공주도 있고.

벽돌공1과 자유인 가식스럽게 웃는다. 서서히 암전. 끝이어 무

대 전체에 조명이 켜진다. (이때 나머지 인원들이 아시바를 치운다. 벽은 부수어져도 상관이 없으며 작업들이 켜져있어도 상관없다.) 오른편에 왕좌 위에 엄마가 앉아있고 왼편에서 철수와 꽃다발을 든 짐승이 서있다. 들은 문을 두드린다.

엄마 누구세요.

철수 엄마.

엄마는 깜짝 놀라 문쪽으로 뛰어가 문을 연다. 철수가 들어와 엄마에게 인사하고 엄마는 놀라�다.

철수 오랜만이에요, 엄마.

엄마 철수야….

철수 같이 온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기다려온….

짐승이 끝이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엄마 (놀라며) 철수야 이 사람은 누구니?

철수 공주요.

엄마 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니?

철수 저를 구해줬어요. 길에서요.

짐승 (웃으며) 오랜만이에요, 엄마.

물이 있다. 그중 하나는 밀대  
어 8쪽 병풍을 옮겨 온다. 나  
왕좌를 만든다. 황새 모자를  
거를 타고 무대에 등장한다.  
거를 주차한 후 벽돌공들을  
후 남성은 왕좌에 아기를 올  
다. 남성은 다시 자전거를 타  
신하를 끌고 들어와 왕좌에  
신하1로 그 역할을 바꾼다.

아들이네?

본다. 다들 기가 죽는다.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이름  
겠다!

마음에서 휴지가 좋겠



목차

1. 지하 14
2. 변신 28
3. 신데렐라 44
4. 철수의 사랑 116
5. 다시 지하 148

5

자유인과 벽돌공이 검은 표장한다. 벽돌공은 자유인으로 한다.

벽돌공1 우리는 어디에 가

자유인 (목을 가다듬으며)  
수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드립니다.

벽돌공1 엄마! 너무 좋다.  
데….(등 뒤에 숨겨놨던 꽃)

자유인 (꽃다발을 받아들며)

벽돌공1 오랜만에 엄마를

자유인 (놀라며) 엄마를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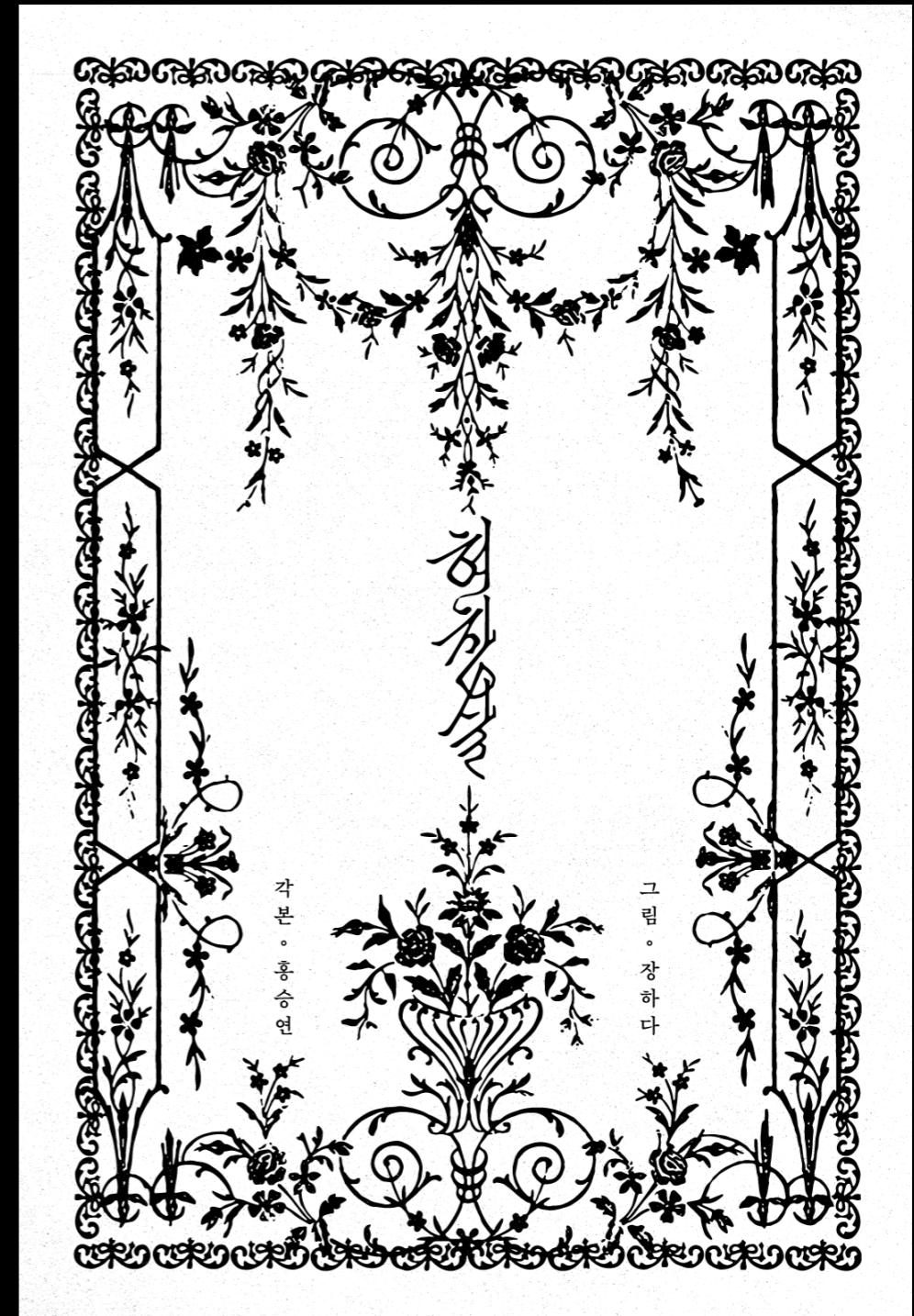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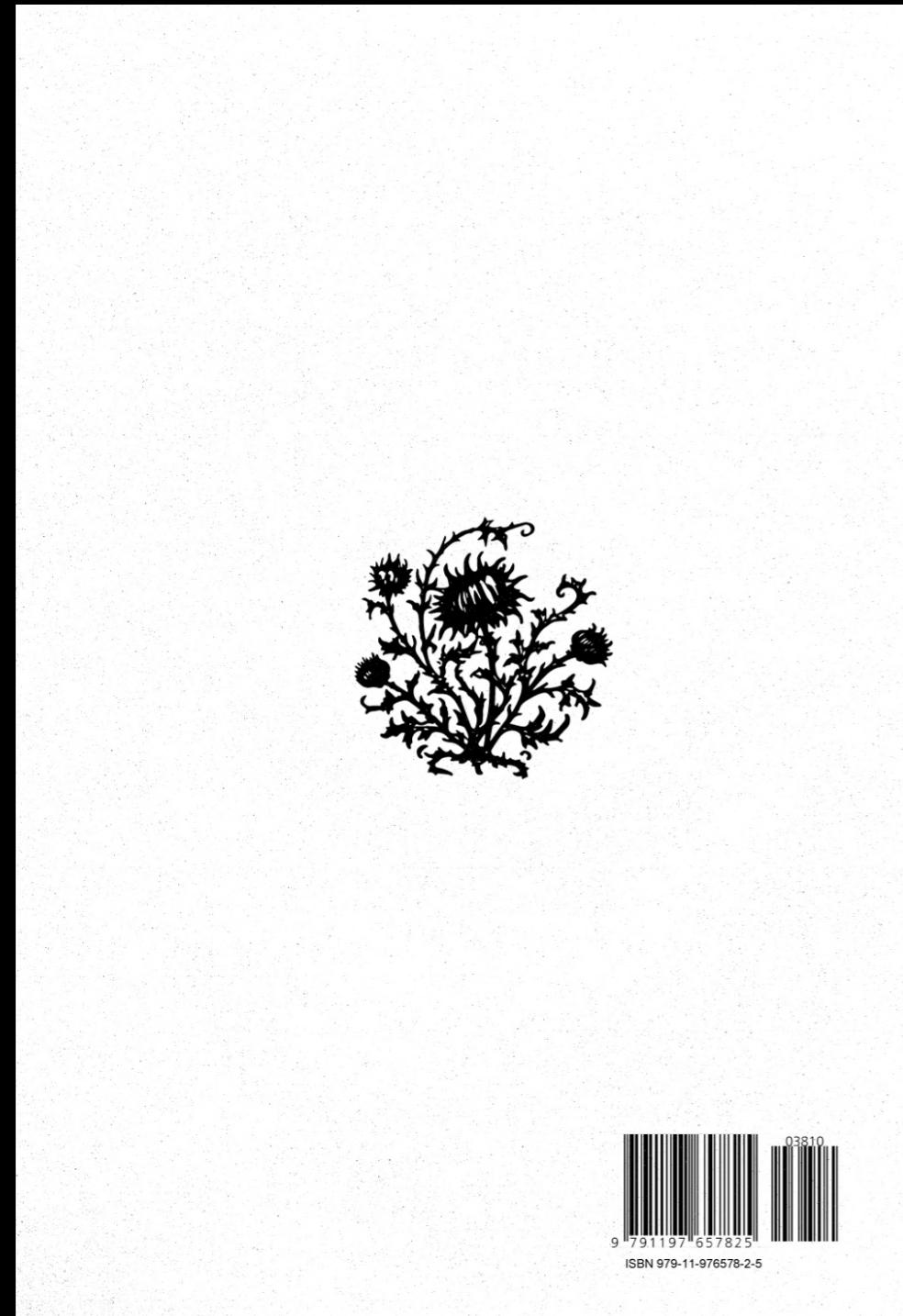
벽돌공1 음…, 엄마 얘기한  
었고.

자유인 엄마가 저를 보면

벽돌공1 (예쁜 척을 하며) ○

자유인 (웃으며) 사파하려

벽돌공1과 자유인 가식스럽



#### **땀에 대하여 SWEAT/STITCH**

땀 흘리는 이와 한 땀 한 땀 수놓는 이들을 인터뷰해 엮었다.  
얇은 종이를 사용해 앞뒷면이 서로의 배경/프레임이 되도록 디자인했다.

*just like a burning iron*  
interview

Editor Park Jho



86

studio parkjihō 2024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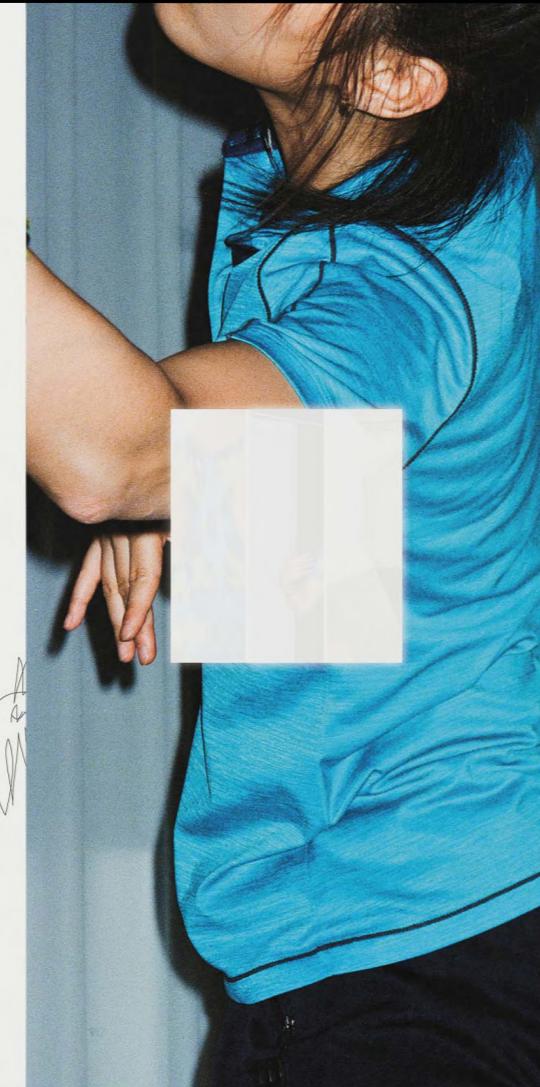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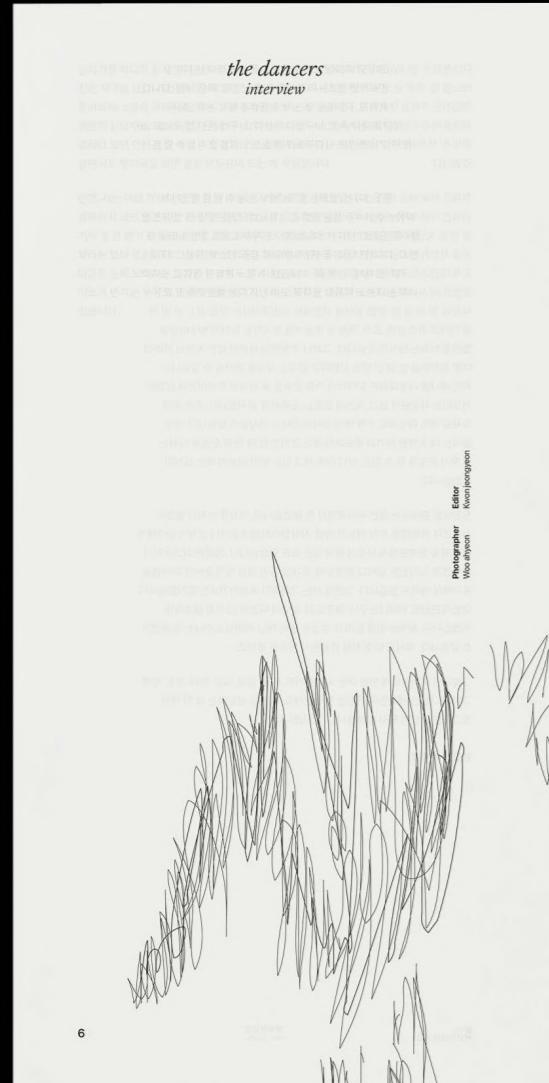
제철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일터 중 하나다. 1,000도에 육박하는 첫덩이가 작업장을 가로지르는 곳, 그곳에서 길후건은 30년 동안 땀을 흘리며 일해왔다. '1,000도', '30년', 가능자수 어려운 거대한 숫자들을 몸소 겪어온 그는 삶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인터뷰  
길홍건

vol.0  
SWEAT/STITCH

88





간단한 자작소개 부탁드린다.  
풀할매TV라는 유튜브 채널에 풀 댄스 영상을 올리고 있는 62세 할주영이다.  
풀을 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원래는 오가를 18년 정도 했다. 내가 오가 강사다. 가르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충분히 오가를 할 수 있었고, 그 점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인해서 요가 수업을 못하게 되니까 허벅지나 이런 곳에 균형이 너무 떨어지더라. 힘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혼자서 풀 수 있는 운동을 찾던 차에 풀댄스를 알게 됐다. 근데도 많이 길러질 것 같았고, 또 중에는 파트너와 서로 호흡을 맞추고 몸을 부딪치면서 죽여야 하는 춤도 있는데, 풀댄스는 그런 춤이 아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배운 걸 바탕으로 혼자서도 풀댄스를 하면서 균형을 기울 수 있겠다 싶었다. 집에 풀댄스 봉도 있다니까.

지금은 풀댄스 춤과 단계인데, 춤에 들어가 보니까 체력이 더 필요하다. 몸을 거꾸로 뒤집는 동작이나 다리로 걸어야 하는 동작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체 힘을 더 길어야 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좀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서 온라인으로 다시 오가 수업도 하고 있다.

풀이나 오가, 풀을 할 때 외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나?  
오전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한다. 엄마가 2, 3년 전에 치매 친단을 받아서 가족 요양을 하려고 치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왔다. 코로나도 도래했지만 그래도 내 수입이 있어서 일상적인 지출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 자격증을 오전에는 직업적으로 써먹는 거다.

직업적인 부분 외에는, 아침 6시부터 종으로 하는 독서 모임이 있다. 7시 40분 정도까지 책 읽고, 잔은 내용과 서로 느낀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쓴다. 글을 쓰고 나면 8시 20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출발해서 9시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도 풀이 힘든 일이다. 일 끝난 후에 오가도 하고 풀도 하면 힘들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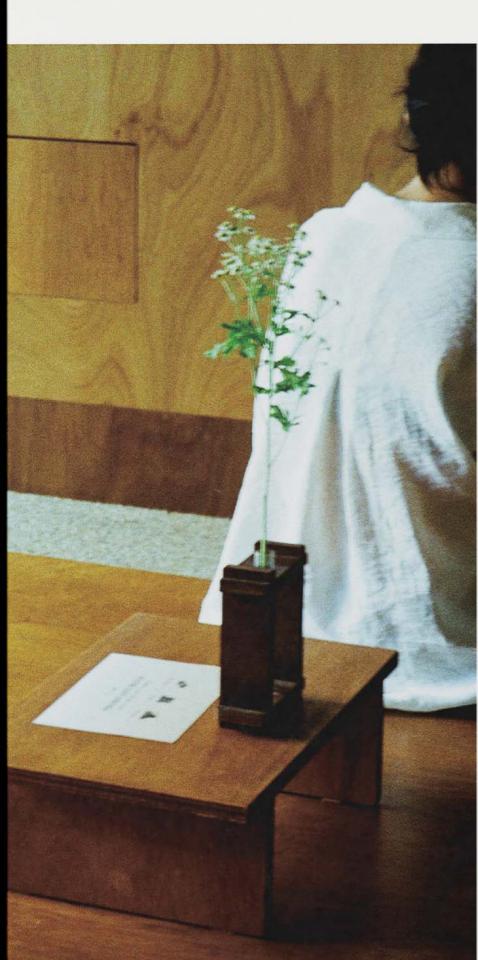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면, 목욕탕 같은 곳을 들어야 할 때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런데 그렇게 노동으로만 몸을 쓰면 안 되니까, 운동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맞다. 요가를 오래 하면서 느꼈는데, 요가가 유연성을 길려 주기도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내가 자녀가 말 풀 아들들로 네 명이다. 이 넷이 나를 온전히 다 데려온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날 힘들게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 중심을 잘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이성적인 균형을 갖는 능력이 요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길러졌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늘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풀할매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영상 편집을 직접 하시는 건가?  
그렇다. 학원에서 빼어서 직접 다 편집하고, 또 부족한 기술이지만 어찌 됐건 가릴 건 가려서 옮려야 하니까 모자이크 처리도 한다. 그렇다 보면 아주 눈이 빠진다. 둔보기도 쓰고 편집을 하는데, 이게 시간을 또 좀 뺏는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SNS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나는 내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70살 정도까지라고 생각한다. 예들한테도 늘 70까지면 일할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이후를 고민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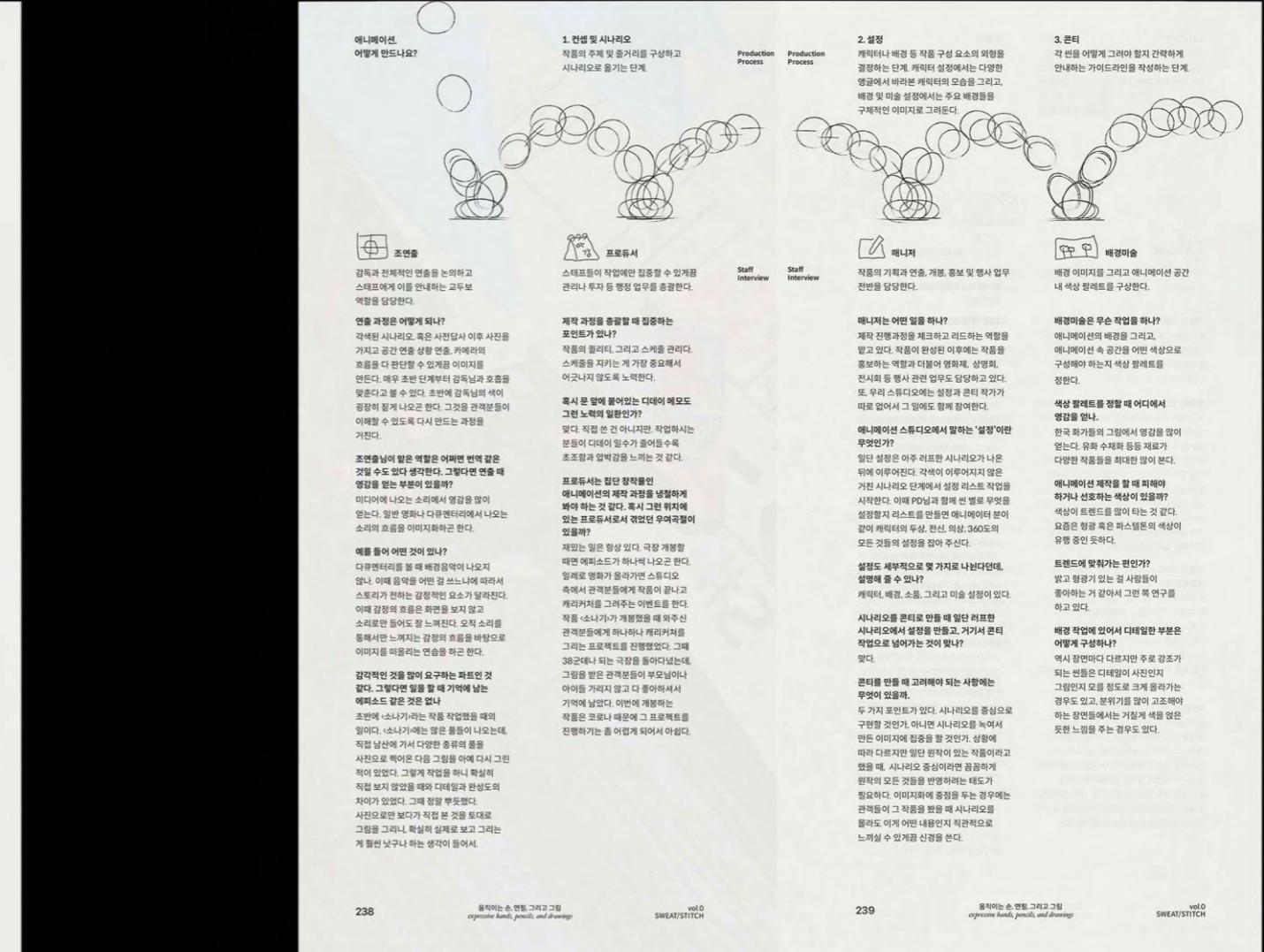
딱딱한 벽과 문으로, 혹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구분 지어, 각각의 공간이 다른 목적을 갖고 서로를 분리해 놓는 것이 공간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뷰클랜드는 달랐다. 뷰클랜드는 큰 공간 속에 다양한 테마를 가진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들이다. 뷰클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간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든 것에 '팔로사토' 향이 묻어있다. 스페인어로 신성한 나무라는 뜻을 가진 팔로사토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속설이 있는데, 뷰클랜드 어느 곳이든 이 팔로사토 향이 스며있고 향이 스며있는 곳에는 쉼이 있다. 운이 좋으면 팔로사토를 태워 연기를 내며 광경을 볼 수 있다. 연기가 막 피어 오를 때 스모카인 한 우디향이 나는는데, 북적북적 나무가 떠오르기도 하고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기분도 든다. 팔로사토는 불을 불이지 않아도 은은한 향을 뿜어내는데, 우디한 향으로 공간이 가득 세워질 때면 봉 빼 있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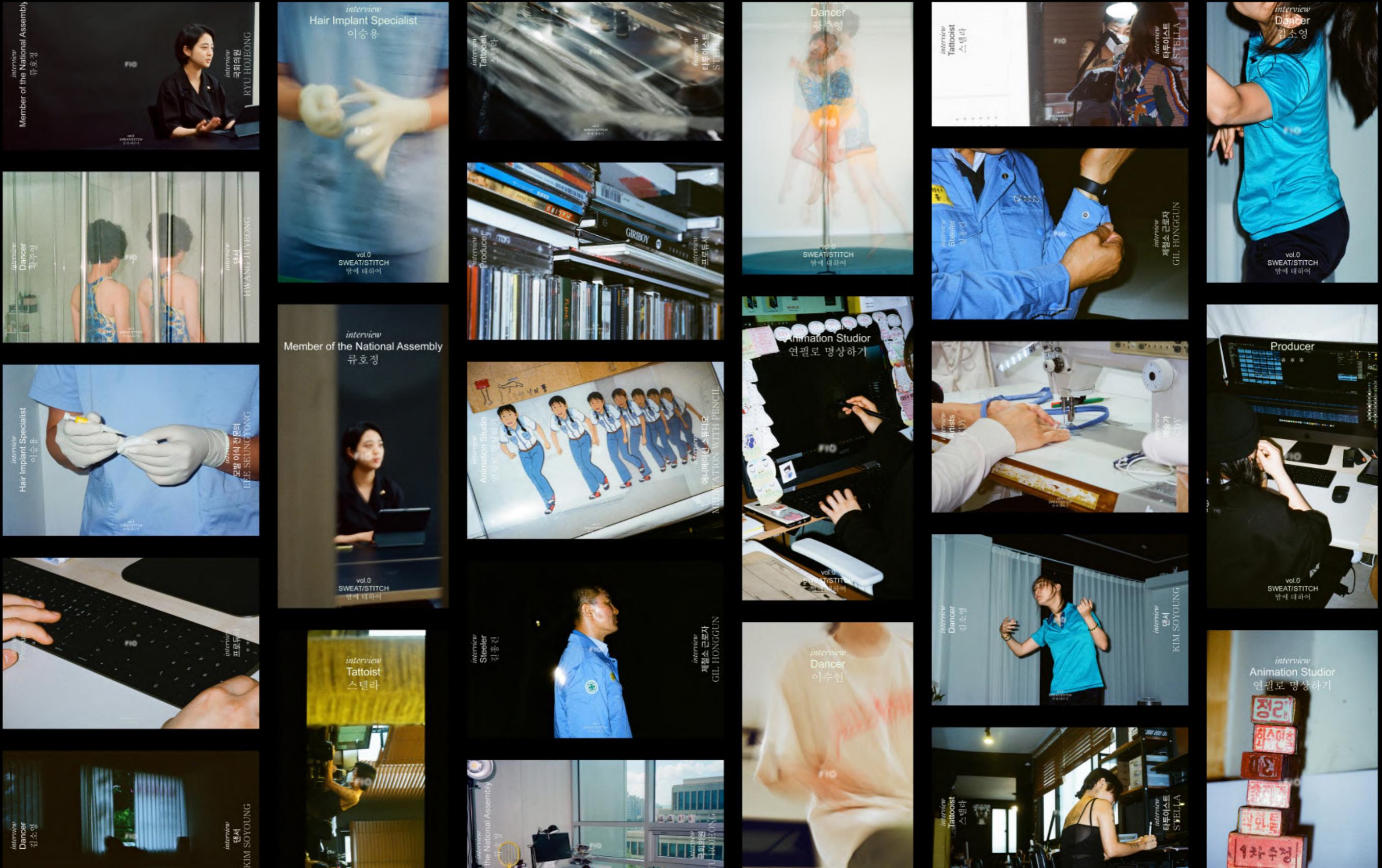
뷰클랜드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름다워지는 곳'이라 소개한다. 그곳에선 어렵지 않게 곳곳에 놓여있는 뷰클랜드 페이퍼를 발견할 수 있다. 페이퍼에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소개와 뷰클랜드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 나는 첫 장에 쓰여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게 된 날'에 오래 미루었다.

더 이상 나을 눈물조차 없던 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망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약도, 상담도, 위로도 통하지 않을 때

나는 그런 날마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잠 속으로 도피했다. 그런데 왜 어전히 고통스러웠을까?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나를 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가둬놓고 괄름했다고. 비록 육체는 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니었으니까. 방 안에서 들고 도는 생각들은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들과 나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철저하게 마련해줄 격이었다.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기엔 힘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무력했다. 그때 방문을 열어 놓았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밸클랜드에 들을 때마다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한다. 한결같은 팔로산토 향을 맡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권의 서점과 함께 땀에 대하여 SWEAT/STITCH의 협업 전시를 열었다.



## 극장의 파빌리온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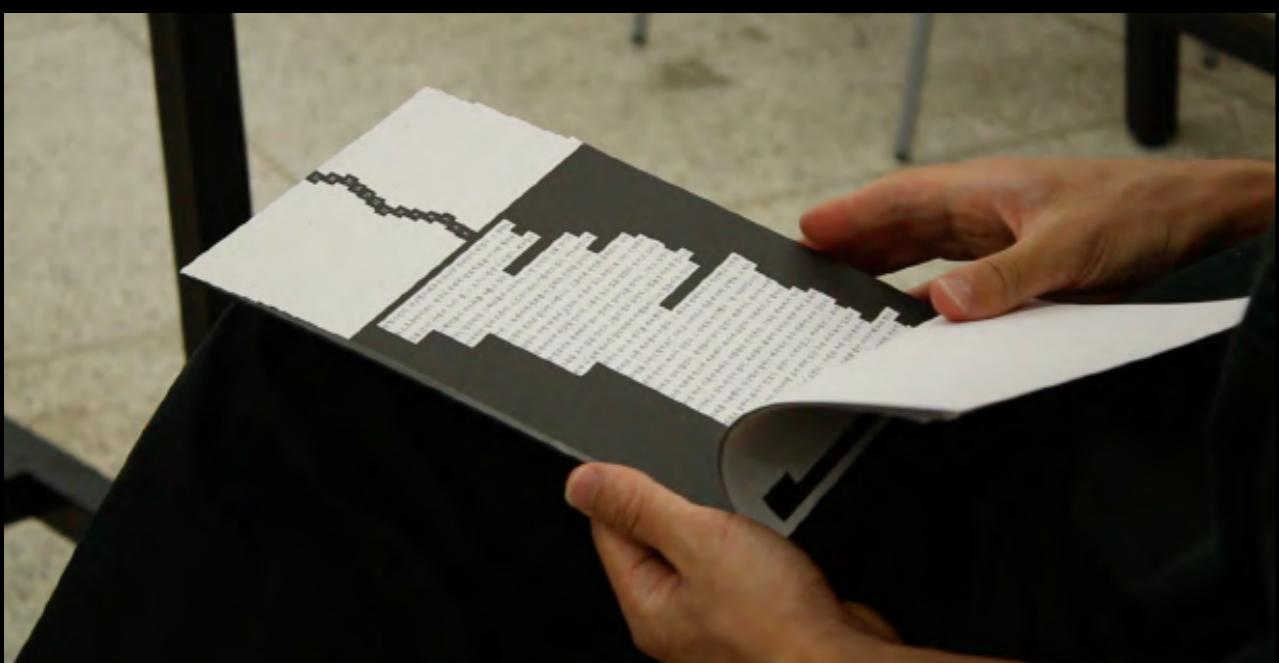
책은 작가의 콘텐츠를 전시하는 무대이자 극장이다.  
단 하나의 글을 위한 특별한 무대-출판물을 만들고 전시했다.



인물의 사적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글이다. 문을 열고 인물의 내면을 들어가는  
상호작용을 연출했다. 양 날개에 각주를 써놓아 어디서든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관음 패티쉬를 지닌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스타킹으로 책을 밀봉해 등장인물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자신이 왜 비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지 현재로부터 과거로 추적해나가는 글이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 한 계단 씩 오르는 것처럼, 글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읽도록 했다.



휴대폰 앨범에 저장한 사진들 중에서 각 달에 한 장씩 골라 이어붙인 작업이다. 주마등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롤러형 장난감 형식으로 출판물을 제작했다.

**● CONTENT**

CATEGORY NOVEL

1. 극장이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이 아니라 영화로 말미암는 세계가 창조되는 공간

2. 관객들의 클로즈업으로 영화 <쉬린>(2008)에 드러나는 이라는 키워드를 배정했다.

3. 고심 끝에 다르던 형제 작품의 주요 텍스트로:

4. 소설을 쓰기로 작심한 구축하다 보니 영화 자체가 시작했다. 이때부터 내러티브 조립하기'에서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서사보다는 영화가 축 더욱 비중 있게 다루기.

5. 저마다 판이한 방식으로 접점을 가진 4명의 관객

**● SPACE**

THEATRE TYPE ESCALATOR

1. 공간 상당을 통해 '병치, 교차, 다양함, 서서히 피어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했다. 말하자면 독자가 부지런히 조립하여 영화 쓰고 싶었던 거다.

2. 테스트 모델링을 했다. 네 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 아니라 영화로 말미암아 관객들 각자의 내면에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공간이라는 발상에서 시작했다.

3. 주제어를 '교차'로 정했고 무대를 두고 교차점을 배치했다.

4. 객석을 낱개의 가구들로 구축하다 보니 관객들이 보이도록 객석 표현을 강조하는 '점'을 강조해 출발점에서 교차 지점을 주었다. 관객은 객석에 배우들을 볼 수 있다.

5. 소설을 쓰기로 작심한 후 주인공이 될 관객들의 캐릭터를 구축하다 보니 영화 자체보다 내가 만든 인물들에 더 정이 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작품의 포커스가 '영화의 내러티브 조립하기'에서 '영화와 함께 서서히 피어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려보는 방식'으로 했다. 말하자면 독자가 관객의 '내면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부지런히 조립하여 영화의 내러티브를 추리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다.

6. 고심 끝에 다르던 형제의 영화 <자전거 탄 소년>(2011)을 작품의 주요 텍스트로 정했다.

7. 저마다 판이한 방식으로 <자전거 탄 소년> 속 인물들과 접점을 가진 4명의 관객이 탄생했다. 이들의 백 스토리를

**● CONTENT**

1. 공간 상당을 통해 '병치, 교차, 다양함, 서서히 피어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했다. 말하자면 독자가 부지런히 조립하여 영화 쓰고 싶었던 거다.

2. 테스트 모델링을 했다. 네 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 아니라 영화로 말미암아 관객들 각자의 내면에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공간이라는 발상에서 시작했다.

3. 주제어를 '교차'로 정했고 무대를 두고 교차점을 배치했다.

4. 객석을 낱개의 가구들로 구축하다 보니 관객들이 보이도록 객석 표현을 강조하는 '점'을 강조해 출발점에서 교차 지점을 주었다. 관객은 객석에 배우들을 볼 수 있다.

5. 소설을 쓰기로 작심한 후 주인공이 될 관객들의 캐릭터를 구축하다 보니 영화 자체보다 내가 만든 인물들에 더 정이 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작품의 포커스가 '영화의 내면세계를 여는 것'이나 '영화와 함께 서서히 피어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려보기'로 이동했다. 고로 영화의 서사보다는 영화가 축발하는 캐릭터들의 회고와 묵상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기로 마음먹었다.

6. 저마다 판이한 방식으로 <자전거 탄 소년> 속 인물들과 접점을 가진 4명의 관객이 탄생했다. 이들의 백 스토리를

**fio**

FIO VOL. I LAUNCH EXHIBITION  
3 STEPS TO BUILD THEATRE PAVILIONS

2022.08.30 - 2022.09.04

김다솔 KIM DASOL  
김민경 KIM MINKYUNG  
백지호 PARK JIHO  
신예경 SHIN YEJUNG  
심세연 SIM SEYEON  
양수빈 YANG SUBIN  
윤난 YOONAN  
이경서 LEE KYUNGSEO  
이경태 LEE KYUNGTAE  
이서현 LEE SEOHYEON  
이유나 LEE YUNA  
하성현 HA SEONGHYUN  
한승민 HAN SEUNGMIN  
정선호 HONG SHINHO

**극장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1. 극장이라는 주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간다. 극장의 무대에서 우리는 극장을 짓는다. 마트료시카처럼. 그렇지만 크기와 모양이 전부 다른 마트료시카. 어쩌면 퍼즐에 비유하는 것이 더 낫겠다. 열기 설기 끼워 맞춰진 극장들은 하나의 거대한 극장 안에 포함된다.

2. 무대 위에 올라 서기 전, 우리는 수많은 극장을 탐색한다. 수많은 극장의 개념을 탐색한다. 수많은 극장의 형태를 탐색한다. 수많은 극장과 관련된 이들을 탐색한다. 우리는 단지 배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철저히 관객이다. 그렇지만 관객이 수동적인가?

3. 무대 위에 올라 선 후에 우리는 연기를 한다.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가끔 배우는 그 사람 자체이다. 가끔 그 배우는 메소드 연기를 한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얼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스크를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기를 직조한다.

4. 배우인 동시에 관객일 수 있을까? 배우이고, 또 관객일 수는 있겠지만, 배우이자 관객일 수 있을까? 어쩌면 자신이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폐나 섬세한 자아 성찰자들이다. 더 나은 표현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의식이 비대하여 자기 자신을 연기한다고 판단하고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다.

5. 여러 양식으로 배우는 자신의 동동함을 자랑한다. 단지 내용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공간이 주어져 있다. 어쩌면 그들은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를, 화장실을 극장이라고 가져올 수도 있다.

6. 스타킹을 뒤집어보세요. 이런 문구가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그들이 지은 극장을 풀어 쓰거나 풀어 낸 사전과 결과물에서 그 특이한 장소를 극장으로 가겠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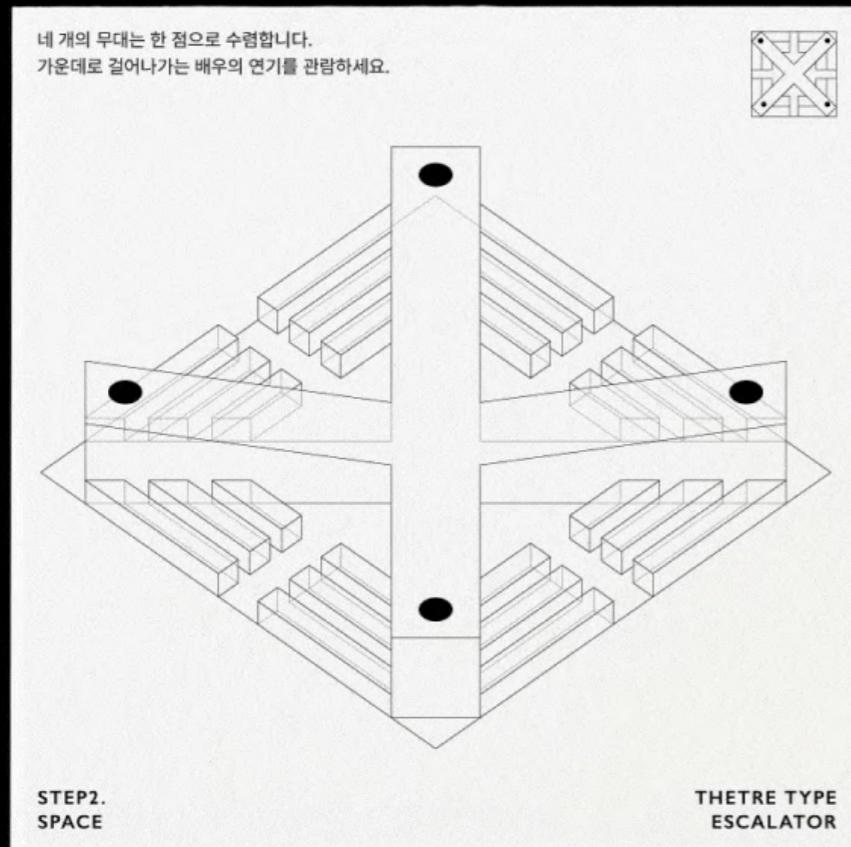
7. 배우는 극장이라는 주제에 매여 있지 않다. 오히려 극장을 뒤고 다시 짓는다. 어쩌면 극장을 확장시킨다. 극장은 경기장이 되기도 하고,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시골집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결과에는 분명히 배우의 논리가 탁월하게 작용한다.

8. 이 관객이자 배우인 사람은 동등하게 자신의 극장을 끌어안고 관객석으로 걸어온다. 제가 만든 극장이에요. 한 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어때요, 당신도 당신만의 극장을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창작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9. 극장, 이라는 거대한 테마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자신처럼 연기한다. 뚱뚱한 분장을 한 배우들은 자신의 삶 집을 자랑한다. 이게, 우리를 배우되게 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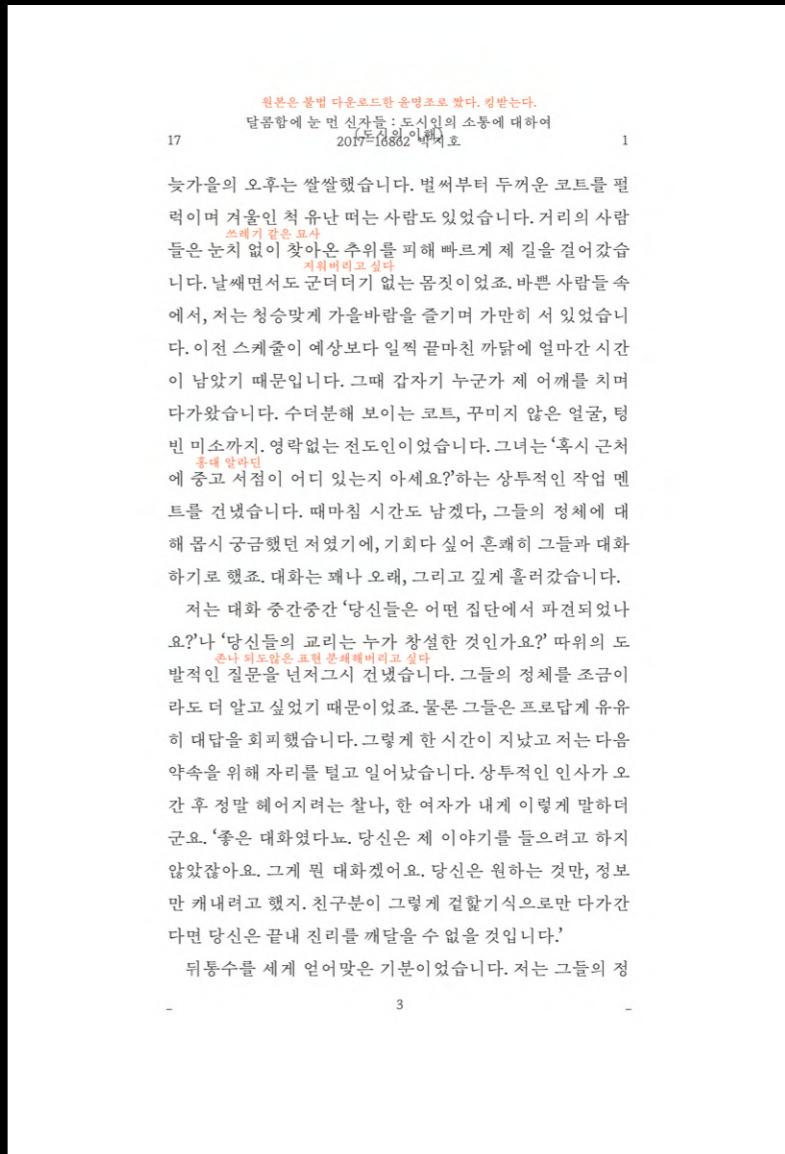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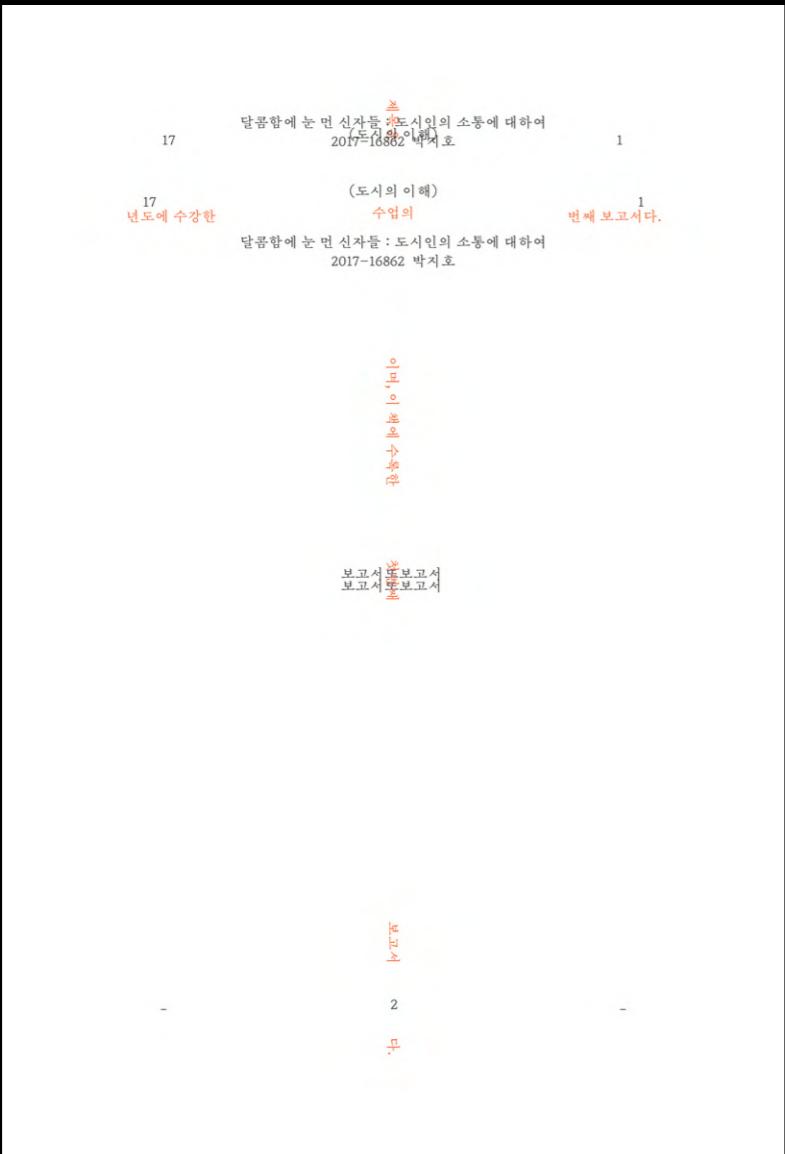
10. 우리는 배우인 동시에 관객이다. 관객인 창작자들은 또 다른 배우가 무대 위에 나타나 뚱뚱한 자신의 극장을 연기해주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우리의 작품을 관람한 당신이 배우이자 관객으로, 뚱뚱한 극장을 지어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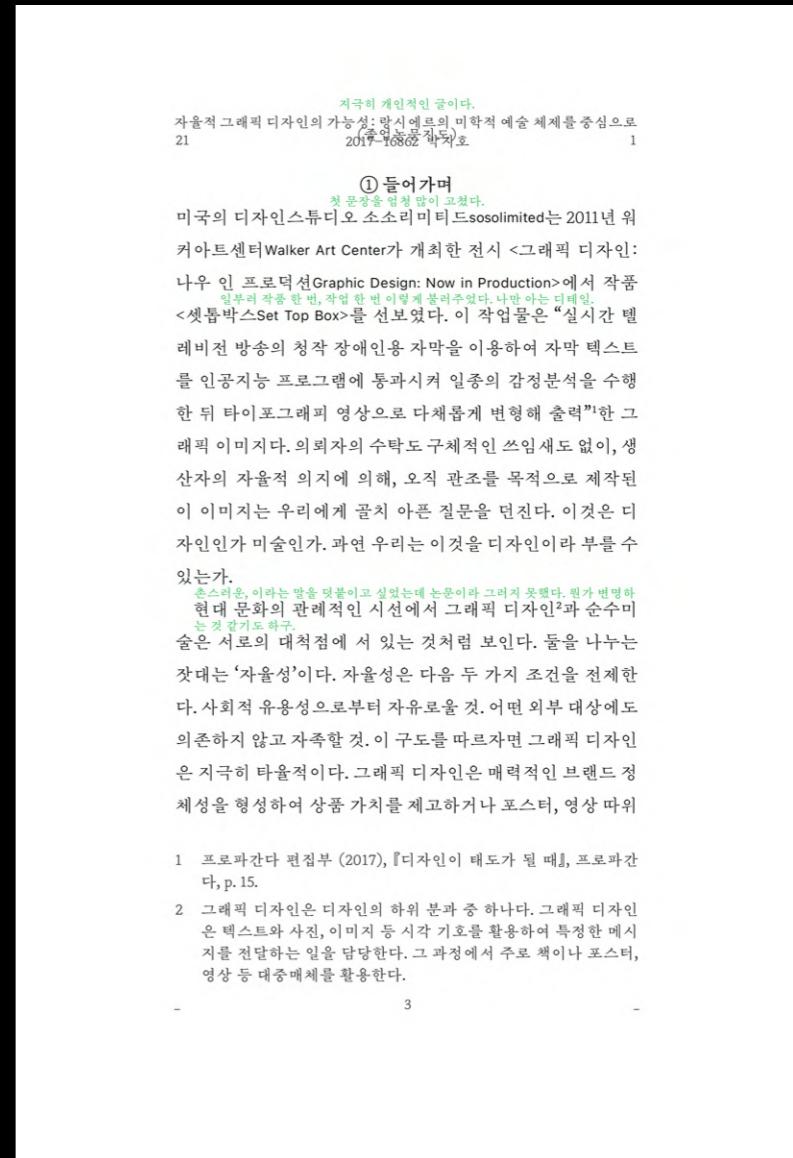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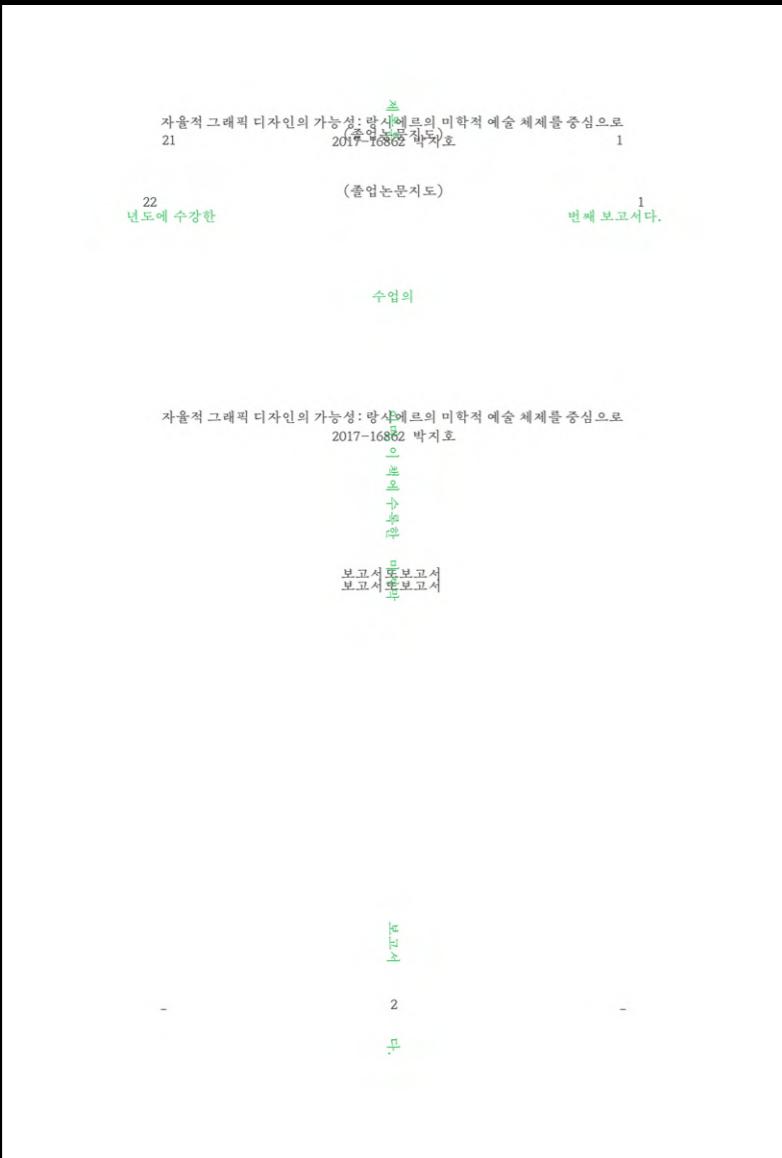
**f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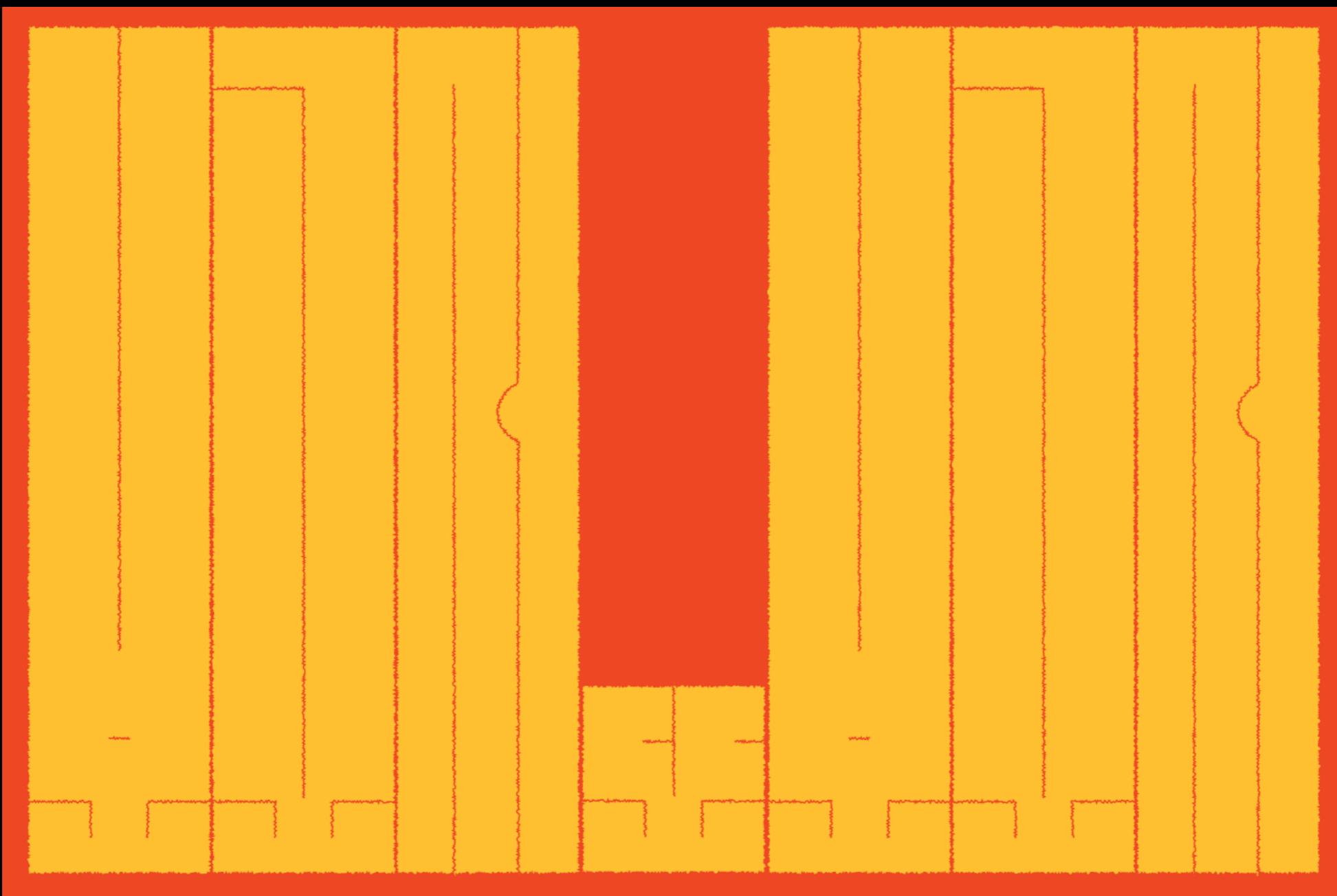


## 보고서도보고서

과거 작성한 레포트들을 모아 자조적인 코멘트를 단 책이다. 교정/교열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행간을 넓히고 글줄 사이에 주석(코멘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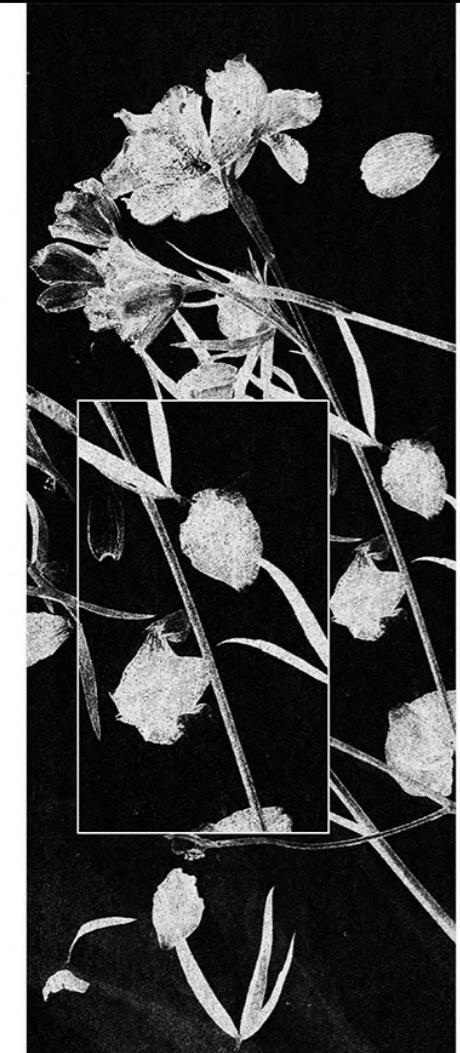




### 아이같은사랑

숨기고 싶은 내면을 에세이로 풀어낸 책이다. 6면이 모두 검은 책으로  
디자인해 폐쇄적인 인상을 연출했다.





## 목차

- 025 방
- 028 한 마디
- 029 꿈같은 이야기
- 032 어떤 가난에 대하여
- 033 영웅
- 036 바다와 신데렐라
- 038 할머니와 미숫가루
- 041 보기와 전부한 이야기
- 044 품명
- 046 무제 1
- 047 데자뷰 증명하기
- 050 다른 계약
- 051 어떤 모녀
- 052 뇌고와 수술
- 053 일면식
- 054 성공의 법칙
- 055 악몽의 실현
- 058 어떤 문장
- 067 커피의 미학
- 071 191008
- 074 어떤 날과 삶과 꿈
- 077 왕비와 말하는 거울
- 081 힘껏 불륜을 저지르겠다
- 082 제주
- 088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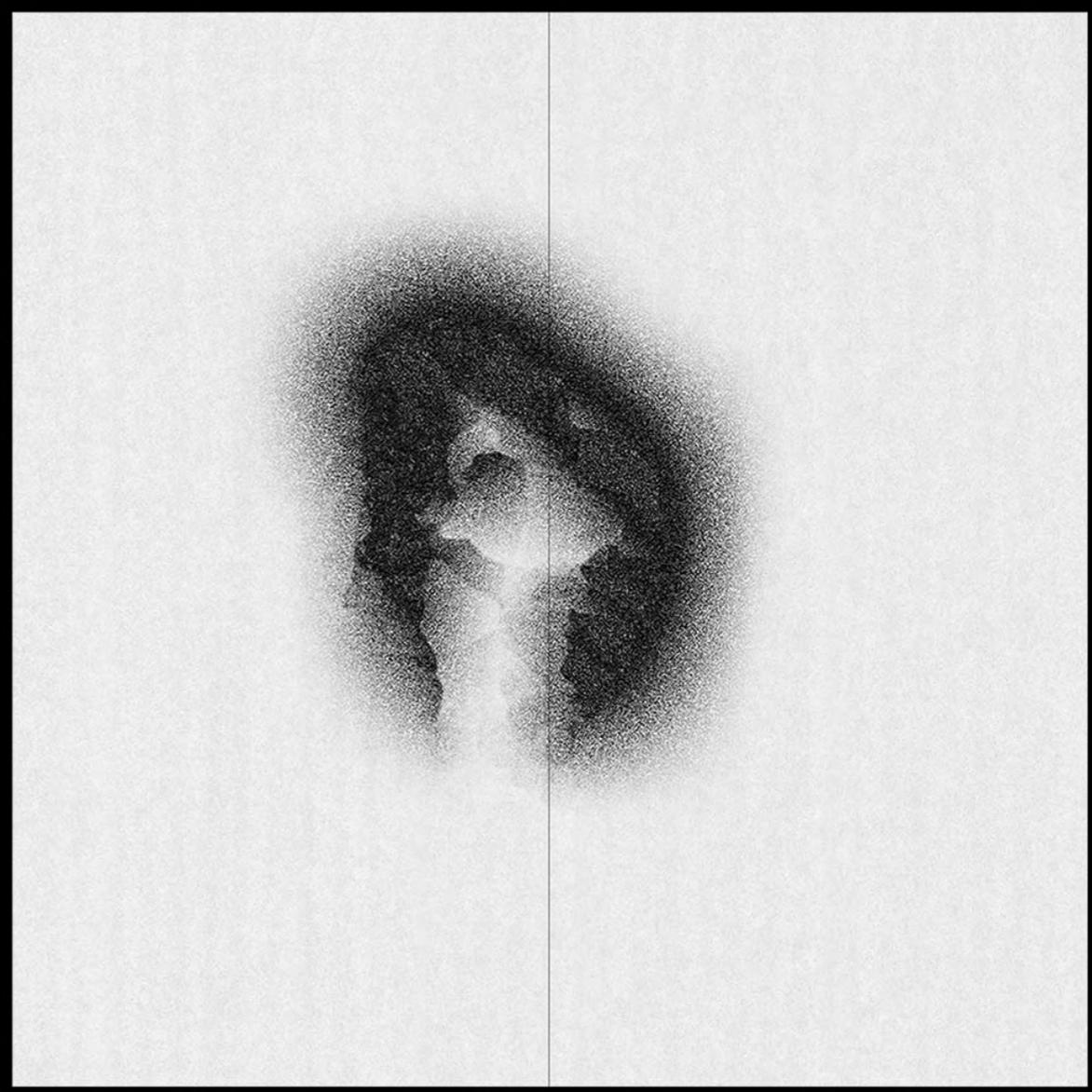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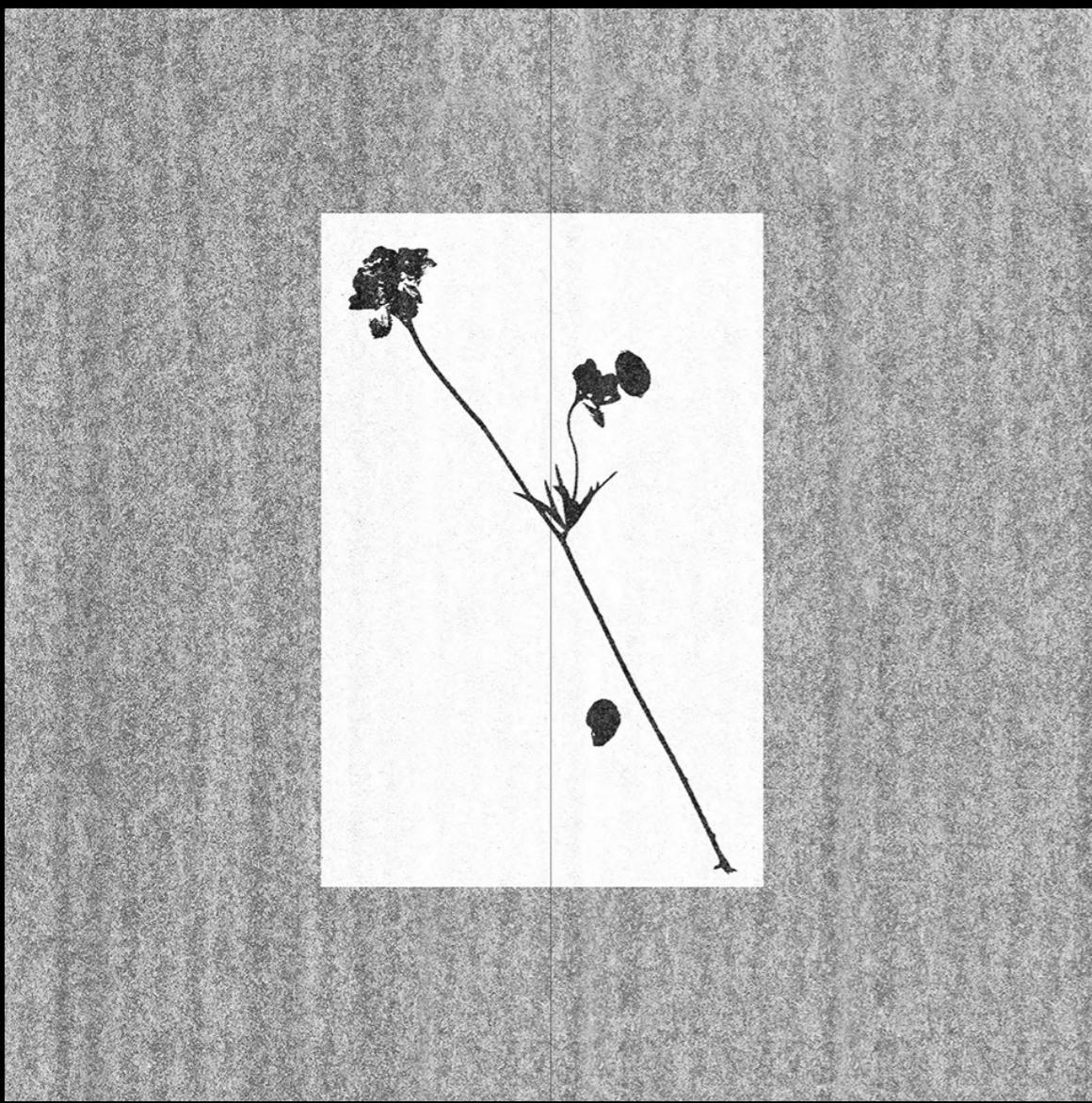
제수 없을 수 있겠지만, 나는 태어나서 어태까지 한 번도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관건은 늘 언제와 어떻게였지. 될까 말까가 아니었다. 무슨 자신감이냐고. 그だけ. 그냥 믿고 보는 거다. 나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는 편이다.

왕비와 말하는 거울  
20191021

내년이면 마흔일곱이 되는 나의 보스는 4급 공무원이고, 한 부서의 장이며, 내가 태어난 해에 입대하여 22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와 나는 같은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구의 작은 주공 아파트.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참 못났습니다. 그는 자기 팀원에게 '쓸모도 없는 녀석이 왜 월급 받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뱉습니다. '너희 같은 애들을 승진시킨 게 올해 가장 큰 실수'라고 면전에다 쏘아붙입니다. 폭언. 욕설. 인격모독. 비아냥. 무시. 그는 강한 척과 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만큼은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머리를





## 나폴리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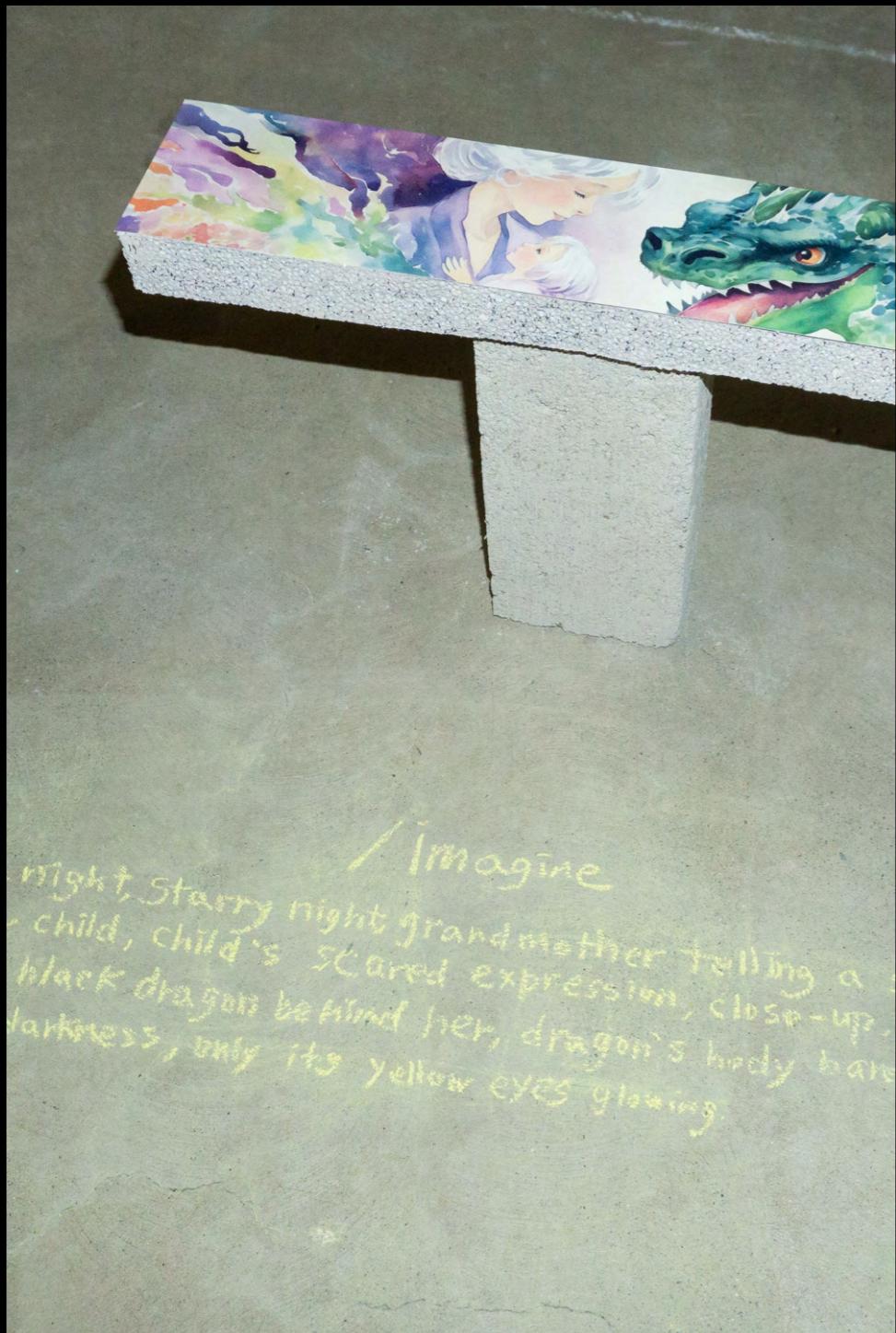
생성형 AI와 함께 음악, 스토리, 이미지를 제작해 전시했다.  
전시는 AI가 숭배 혹은 공포의 대상으로 타자화 되는 대신,  
어엿한 존재로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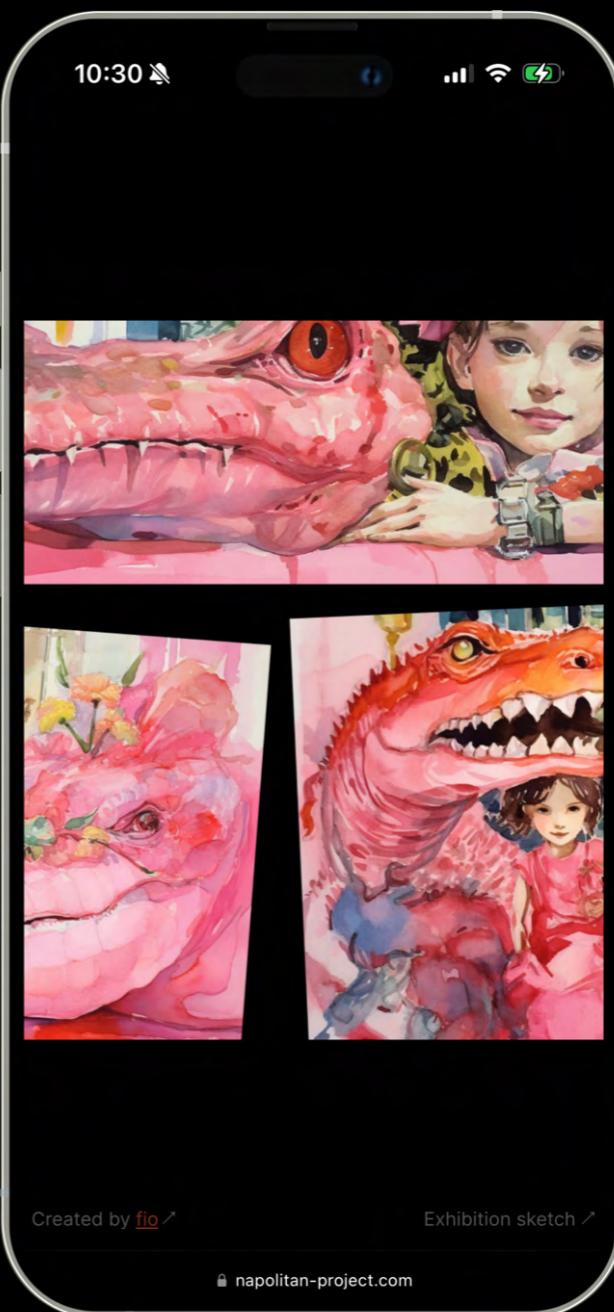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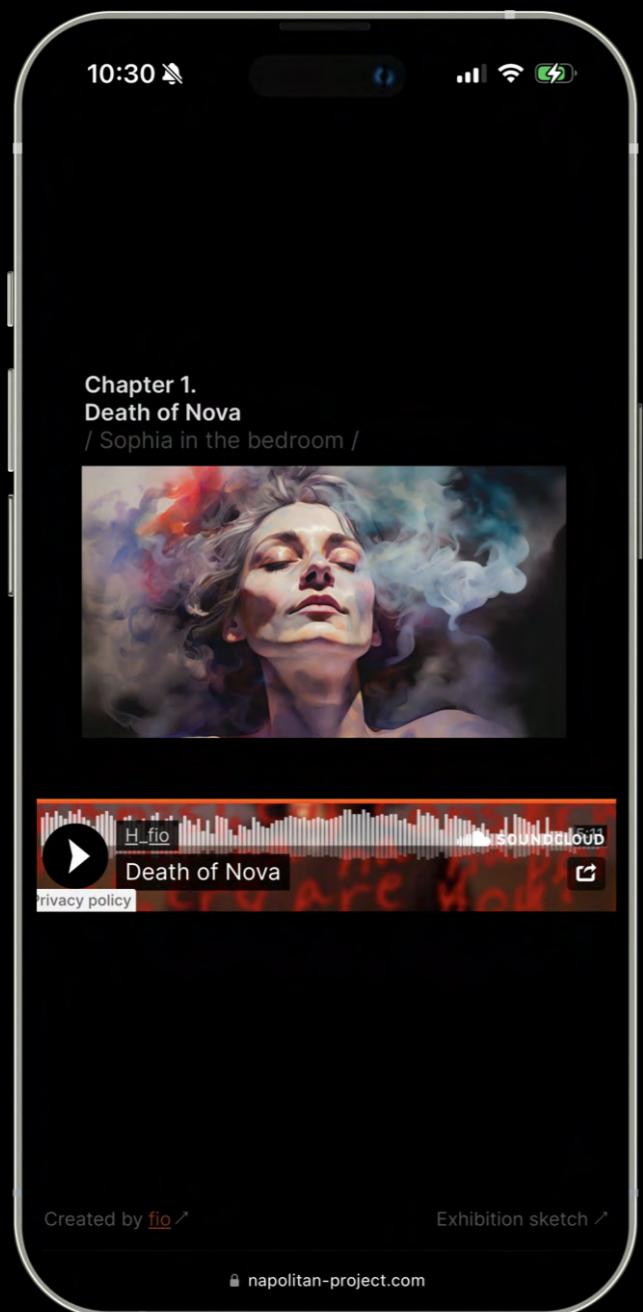


전시장이었던 파워플랜트는 공간이 거대하고 그 자체로 정체성이 강하다. 관객이 전시 공간이 아닌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바닥에 배치, 시선을 아래로 내림으로써 광활한 공간으로 눈길을 뺏기지 않도록 의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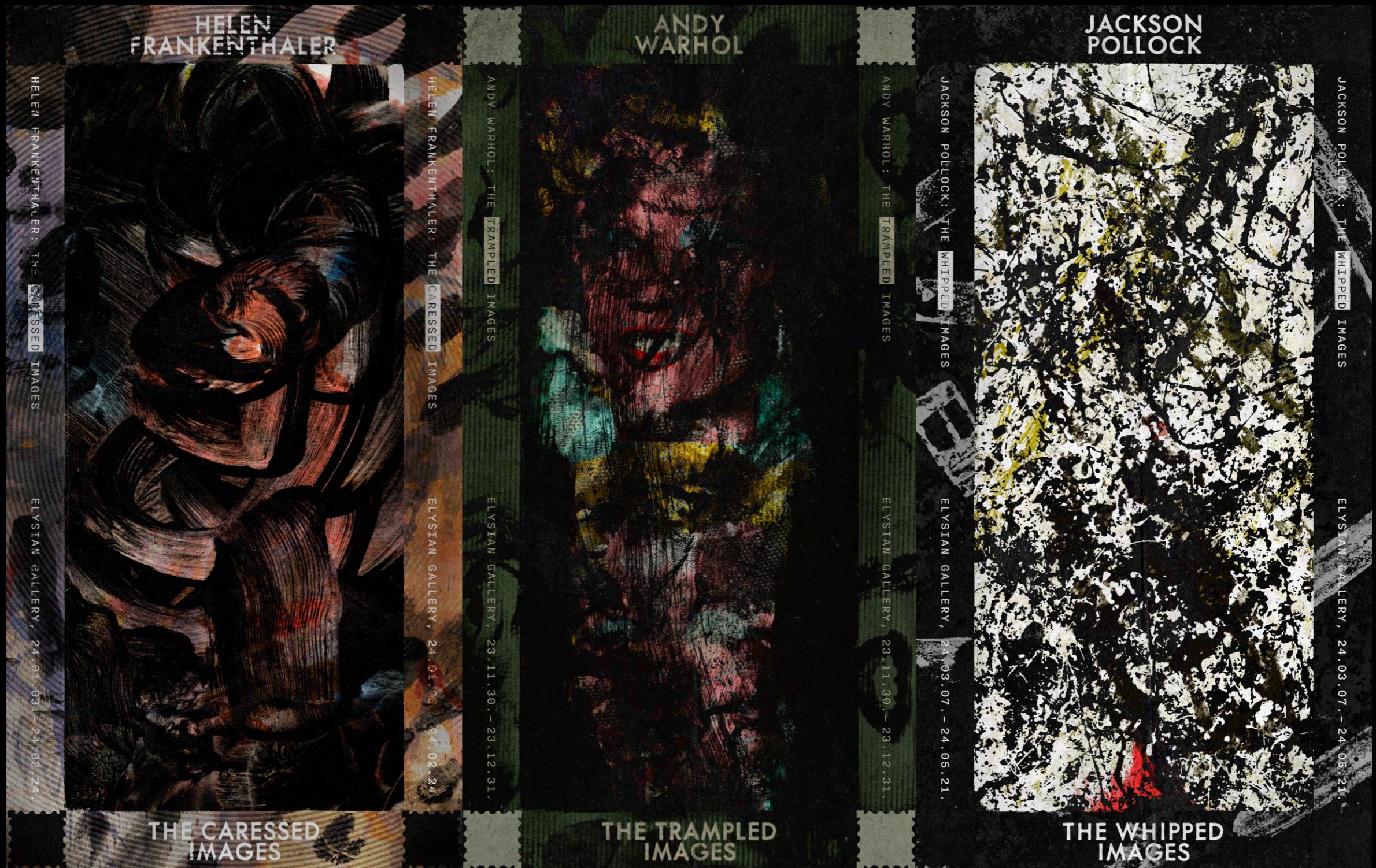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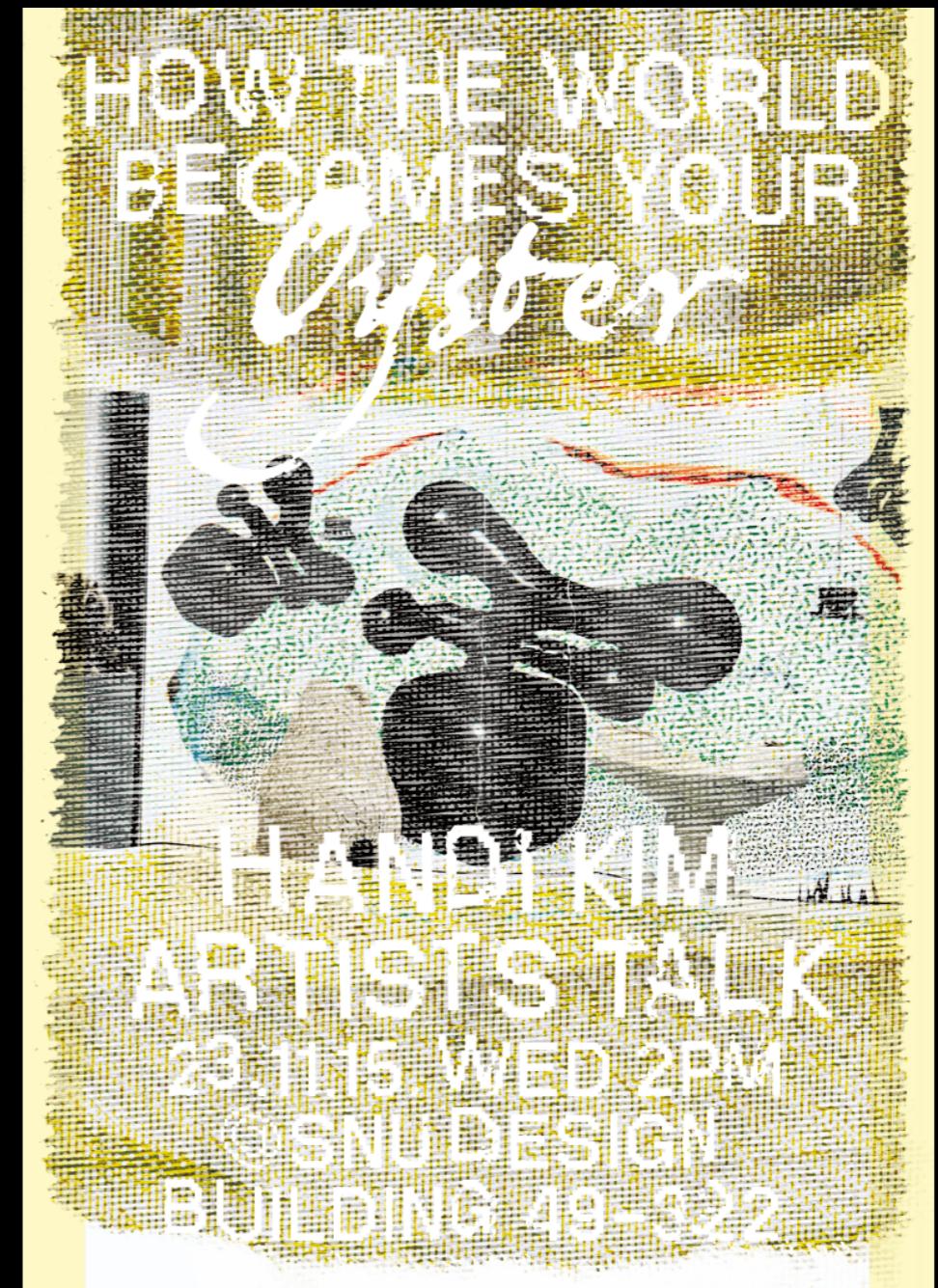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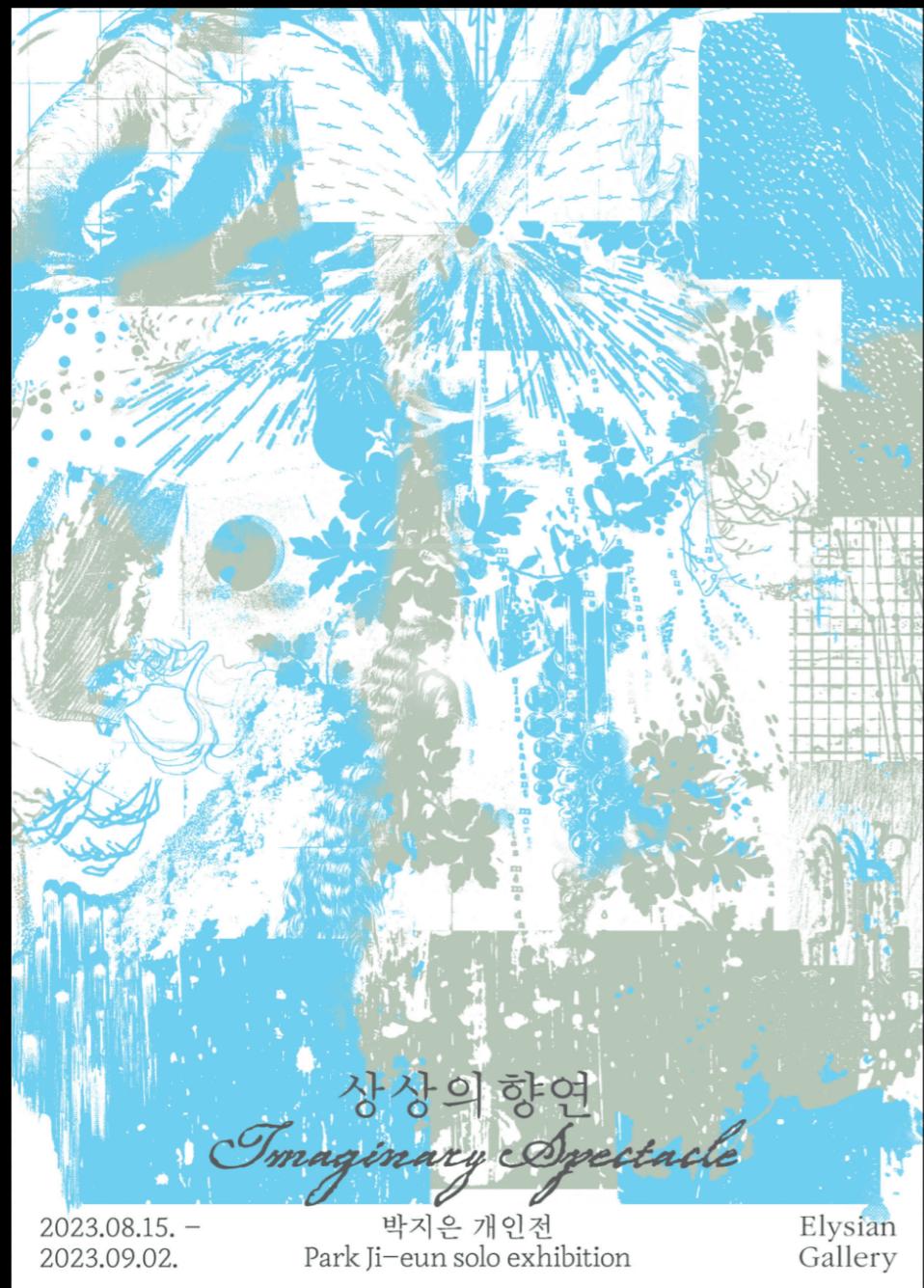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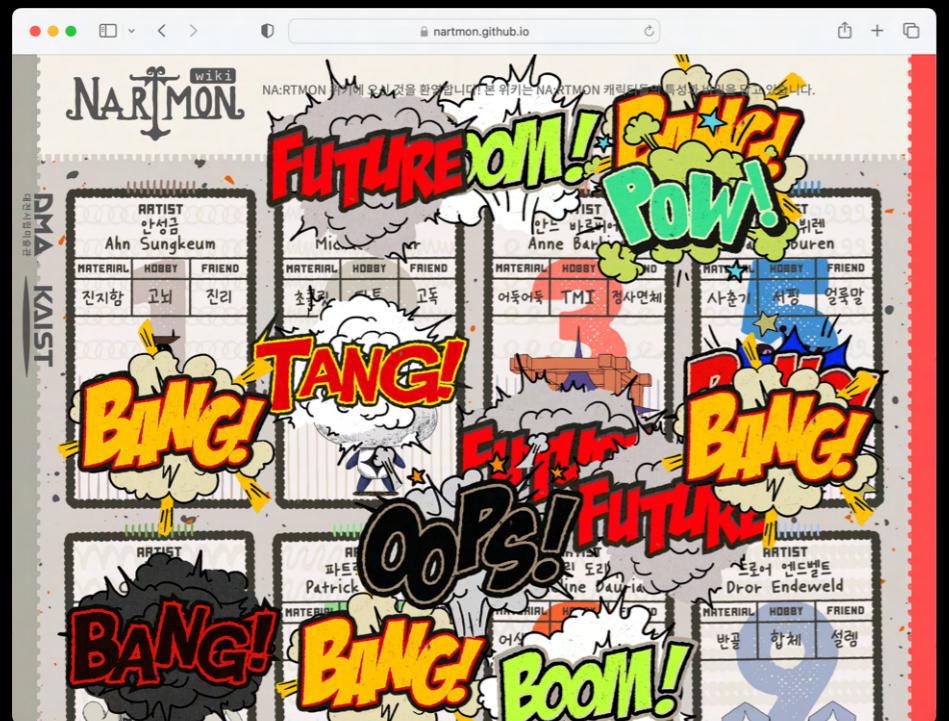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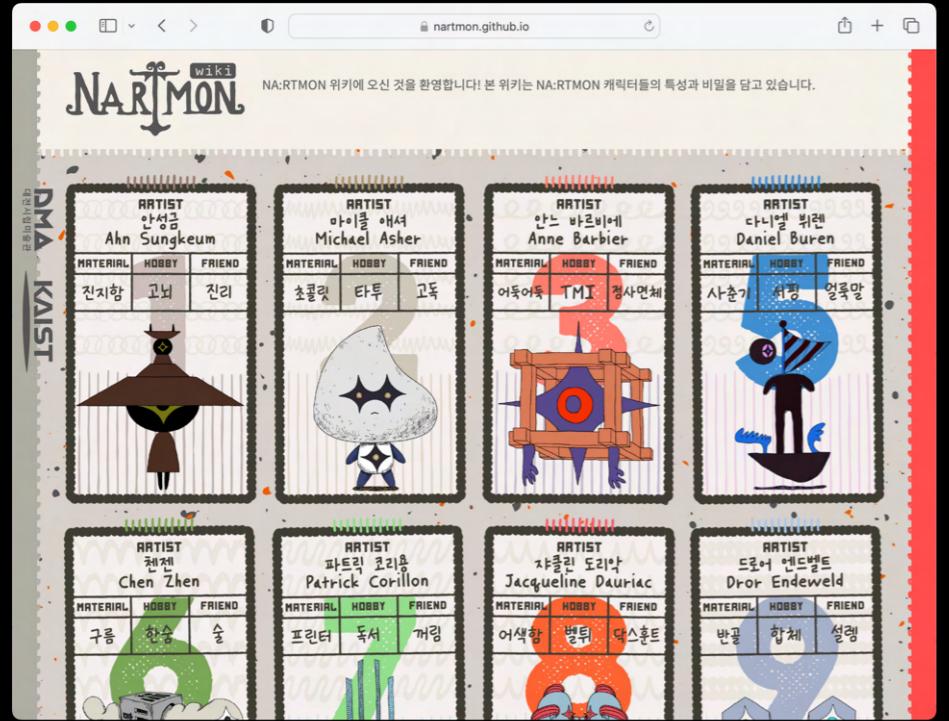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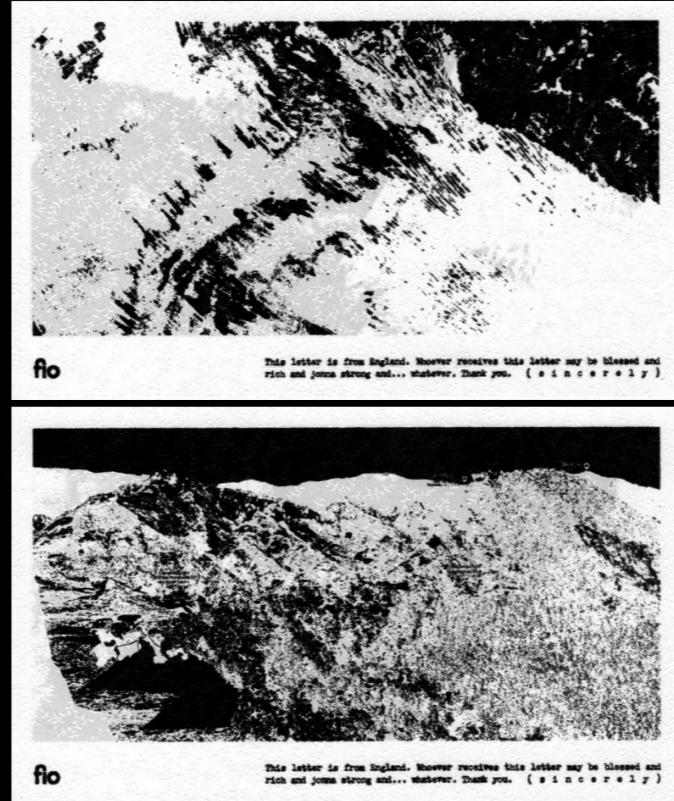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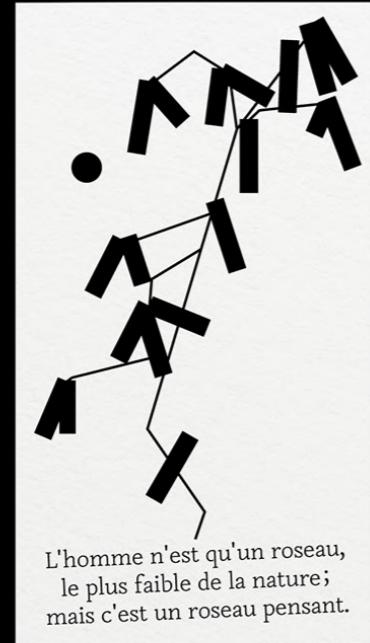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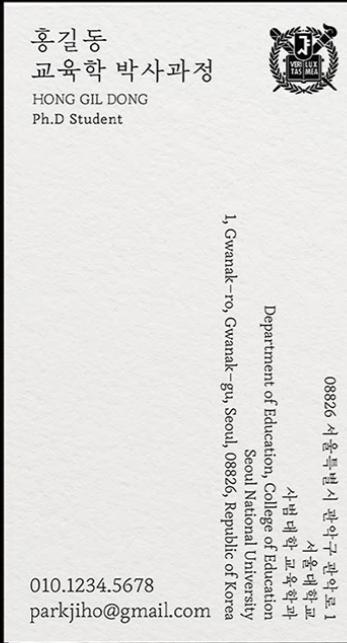
<https://napolitan-project.com>에서 이미지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모바일 최적화)

## Other Graphics...









감사합니다.